



# 생리공결제, 다른 용도로 악용사례 늘어

## 제도에 '공감' 하면서도 양체족엔 '반감'

'생리공결제'가 일부 여학생들의 오남용 문제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생리공결제는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생리통으로 고통 받던 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생리공결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의명을 요구한 인문대 한 학생은 "제제가 밀려서, 전공수업이 아니거나 하루 빠져도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지 않은 수업은 생리공결을 내고 빠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저녁 늦게까지アルバ를 하고 다음날 1,2교시에 나가기가 힘들어 생리공결을 냈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의 경우 생리공결제의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요성은 인정하는 추세이다.

홍성민(전기공학 3) 학생은 "여동생이 있는데 생리통이 심할 때는 매우 고통다는데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개선돼야 하지만 생리공결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경하(철학 4) 총여학생회 부회장 역시 "오남용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생리통은 아픔이므로 일일이 분류하기가 힘들다"며 "공결문을 받으려 오는 여학우분들께 오남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대는 주

기율을 두지 않고 한달에 한번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는 생리공결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하는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므로 생리공결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한양대의 사례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전 수업을 빠질 경우에만 공결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오전에 아팠다가 오후에 나아서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양한 대안을 총여학생회에서 정식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성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혜경(사회학과) 강사는 "교수들이 생리공결제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생리공결제 정립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으로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를 권리로 인식하여 잘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조매경(건강증진센터) 간호사는 "생리통으로 센터를 찾은 학생 중 '더 쉬라고 권유해도 수업이 있다고 참고 가는 학생들이 있다'며 '생리통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빠지는 학생의 경우 다음 수업을 따라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제를 내는 방식 등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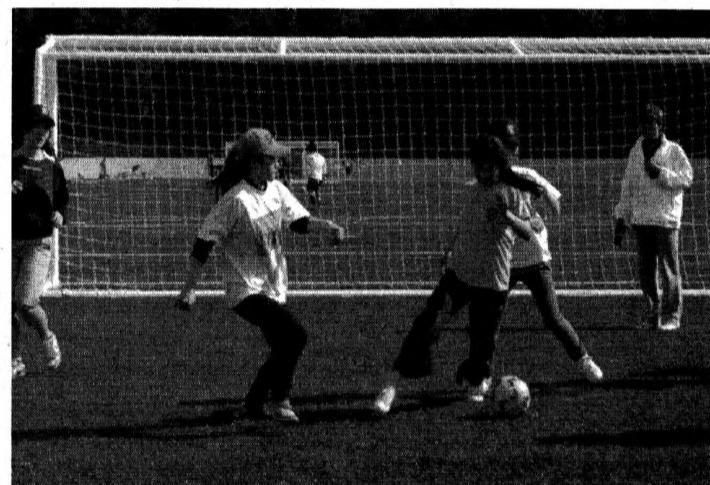
### 12억여원 투입... 우레탄 육상트랙도

지난달 29일 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사업비 1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에 추진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축구장(68m X 105m) 1개소, 우레탄 육상트랙 100m 400m 각 6레인, 투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및 3단 멀리뛰기, 씨름장 등이 조성됐다. 또한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설치되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시설과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 구원에 의뢰하여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새롭게 조성된 대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법정대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새롭게 문을 연 종합운동장의 이용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5월 중순쯤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보배 수습기자

## 해양학술제 취업박람회 개최

'해양 학술제 및 해양산업 취업박람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해양과학대학과 친환경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공동 주최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해양 학술제 및 해양산업 취업박람회는 저평가되어 있는 해양과학대학의 이미지 쇄신과 도내·외 관련 업체의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해양 학술제에서는 해양대 내 7개 학과의 기자재 시연회와 9개 소학회의 작품 및 활동 전시회가 이어졌으며, 제 5회 해양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 대회의 시상식과 전날 있었던 양식업체 품질평가 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누리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제와 취업박람회는 현장 실무자에게 모의면접을 보고 기업환경을 접해보는 등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에게 도내·외의 취업환경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U캠퍼스 구축 4년, 그러나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U캠퍼스는 대학 구성원들이 노트북과 PDA, 핸드폰 등 무선 단

말기를 통해 학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학사 행정 및 도서관 서버, 웹 메일 등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무선 랜을 사용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나 정보통신원 홈페이지에 'U캠퍼스 무선 랜 아이디'를 신청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U캠퍼스의 말이 무색하게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짖은 끊김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김민형(스토리텔링학과) 강사는 "강의 대부분이 영상강의라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거나 자주 끊겨 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무선인터넷은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보통신원에 이런 문제점을 문의

했더니 야외에서만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해 의아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 U캠퍼스 담당자는 "처음 U캠퍼스를 구축할 때 건물 내부까지도 무선 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외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라며 "현재 인터넷 문제에 대해 불편점이 자주 제기된다면 다시 KT에 A/S를 요청하고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 U캠퍼스 '반쪽' 전략

### 건물 실내에선 연결 안돼 답답

U캠퍼스 구축 4년, 그러나 무선

랜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U캠퍼스는 대학 구성원들이 노트북과 PDA, 핸드폰 등 무선 단

말기를 통해 학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학사 행정 및 도서관 서버, 웹 메일 등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무선 랜을 사용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나 정보통신원 홈페이지에 'U캠퍼스 무선 랜 아이디'를 신청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DVD실에 있는 18대의 DVD플레이어와 19인치 LCD모니터, 스피커를 구비해 놓았으며 DVD강의와 함께 강의교재도 비치돼 있어 학생들이 편

고용희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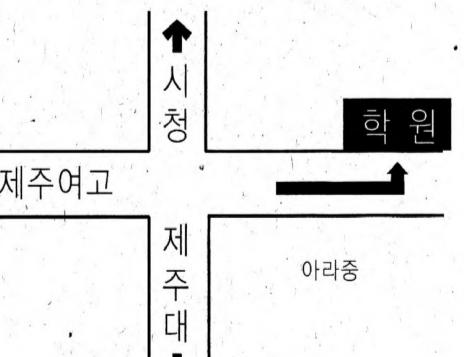
시 중 이용 가능하다. DVD실에는 18대의 DVD플레이어와 19인치 LCD모니터, 스피커를 구비해 놓았으며 DVD강의와 함께 강의교재도 비치돼 있어 학생들이 편

## 운전면허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업체

###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 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제 29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 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년을 맞이하여 제 29회

백록 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다음

1.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응모분야: 시(1인 5편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09년 5월 18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언론·출판센터 행정실(직업능력개발원 3층)
  5. 발표: 제주대신문 818호(2009년 6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 ※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 학생회 행사를 접수 받습니다.

제주대신문에서는 각 학과와 단과대, 종합운영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의 '학생회행사'란에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알릴 여려가지 내용들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 754-2279



하세가와 와타루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이사장

# “제주와 제주대는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어”

## 정책적인 면에 변화를 이루어야

재외 제주인을 취재하던 우리 취재팀은 교토에서 제주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을 찾았다.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일본 최초의 IT전문대학원으로서 지난 2006년 9월에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지난해 11월 국제 화상강의를 시작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입구에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맞아주었고, 학내 시설을 돌아본 후 하세가와 와타루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하세가와 와타루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 제주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지혜롭게 보였다. 인상적이었다.”

### 제주대 이리닝센터는 어떠했는가

“이리닝 센터를 인상 깊게 보았다. 방송시설과 스튜디오 등 시설이 매우 잘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와의 컨설팅은 조금 다르다.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IT 전문대학원이고 IT부분에 실용적인 부분에 더 발전해 있다.”

###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의 총 학생수는 대학교의 경우 1500명, 대학원의 경우에는 120명 정도가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합쳐서 100명과 150명 사이의 정도를 맞다. 대부분 중국 유학생이 많고 한국인의 경우는 적은 편이다. 한국 학생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국 자체에 일본의 많은 대학들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정보 전달 루트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아쉽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서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 학생이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준다. 일본에서 집을 빌리려면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일본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보증을 서준다. 또 부설 학교가 있어 그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취업까지 알아보준다.”

### 이곳 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은 잘 되는가

“그렇다. 마침 오늘 기업설명회가 있다. 불황에도 많이들 와서 다닌다. 지금 일본 경제는 많이 불황이긴 하다.”



건축업의 경우는 7할정도, IT 관련 업종도 2할 정도는 규모가 적어졌다. 향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예측이 힘들다.

### 건축업 경쟁 만큼은 없다. 일단 우리 학교에서 톱클래스에 들 정도면 졸업 1년 전에 직장이 이미 정해진다. 나머지도 졸업 후 3개월 내에는 능력에 맞는 취업이 된다. 1년 내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심한 불황이라 취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도 2~3개월 내에는 반드시 취직이 된다. 불황임에도 이 IT업계는 취직자리가 많다. 가려고만 하면 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물론 우리 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이다. 우리 학교는 IT 수준은 일본 최고이다.”

컴퓨터 관련 업체 어디든 우리 졸업생이 있다. 졸업생은 3만8천명 정도이다. 이 중에는 일본 경기가 호황이었던 70~80년대에는 취직이 너무 잘 되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졸업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 출신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닌텐도 최고의 게임프로그램에도 우리대학 출신이다. 슈퍼마리오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 고급 시설을 유지하려면 등록금이 비쌀 것 같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는 큰 문제이다. 등록금과 장학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학교의 컴퓨터들을 2~3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업체에도 우리 졸업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구입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는 개발도상국 22개국을 지원하는데 199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우리 학교가 컴퓨터를 교체 할 때 이 전 컴퓨터들을 이곳으로 보내고 그곳의 컴퓨터 교육을 맡기도 한다.”

유학생의 장학혜택은 학생 출신의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다. 경제 사

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장학혜택이 많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는 자매결연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처리해준다. 또한 등록금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빌려주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형식이다. 모두가 취직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학교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다.”

### 제주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있다면

“제주로서는 IT를 통한 국제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주 내부의 인재육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 우리와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제주를 글로벌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우리 학교의 광고 흥보효과도 있다. 제주도와 이러한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큰 이유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제주는 스스로 행정능력이 가능하기에 제주라면 공동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진행하기가 쉽다. 이러한 바탕이라면 제주도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IT대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다.”

### 끝으로 제주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는 아시아에서도 가능성이 크다.”

# “눈높이를 낮추면 취직이 보인다”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 2월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14만 2천명이 감소(전년대비 13.8% 감소)하였다. 청년층 실업심화,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이 늘어나면서 현재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종전의 사오정(45세 정년) 오도록(56세 넘으면 도독님)에서 이보백(20대 퇴직한 백수) 삼팔선(38세까지 구조조정) 삼조맨(30대 초반에 명예퇴직) 등 세 유형들로 쏟아지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등 대졸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창의적 사고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 원만한 대인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이다. 즉,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A학점, 토익 800점 이상 등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우리 대학 취업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도 졸업생 취업 현황은 조사 중에 있지만 2008. 2월 졸업생 1,899명(취업 제외자수 178명 미포함) 중에 취업 1,134명(59.7%)과 미취업 765명(40.3%)이다. 취업자 중에서 도외 취업자가 320명, 도내 취업자가 814명 72%를 차지하고 있다. 미취업자 765명 중에 국가고시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669명으로 87.4%로서 대부분이 아직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과감히 외부(도외) 기업 취직에 도전이 필요하고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준비가 안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취업을 위한 4가지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면접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시 면접비중이 50% 이상(사실상 당락 결정)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들면, 직원의 해외 인턴십 선발과정에서 A학점, 토익 점수 850점 이상으로 스펙은 좋지만 면접에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 못하고 지원동기 등 영어로 말을 못하여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

둘째, 사회봉사·인턴경험 등을 쌓아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사회봉사 인턴경험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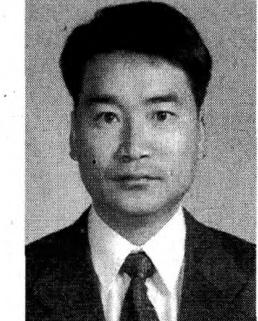
셋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 소개서 작성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족의 몇남 몇녀의 장남(여)로 태어나 집안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등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읽어 보지도 않는다. 내용을 두괄식으로 작성하여 하며 최소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흡폐이지 등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대기업, 공기업 및 공무원시험 등에 2~3회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는 약 20만 여개의 중·소 기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인·적성 검사, 사회봉사활동, 인턴십, 개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잡카페를 개설하여 채용정보, 각종 수험서 등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매주 월요일은 모의 면접을 통하여 면접 클리닉을 해주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미취업 졸업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



김문규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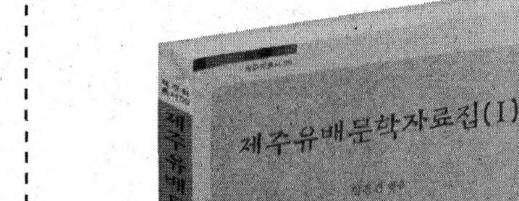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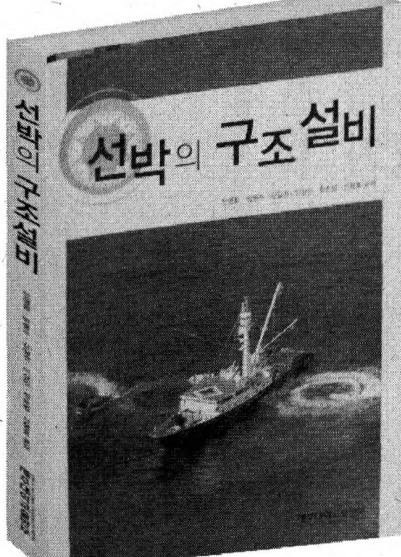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원

## 제주학 총서 모음

### 선박의 구조설비

인류문명의 발달자는 모두 큰 강이나 바다와 인접한 수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인간이 강이나 바다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기구가 끌어온다.

따라서, 배는 인간과 바리를 연결해주는 매체로서 원시시대 불나무에로부터 현재 최첨단 원자력선에 이르기까지 배의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한 만큼, 인간과 바다 그리고 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여 왔으며,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의 약 99%와 해양수단이 선박에 의해 이루고 있다.



### 제주유배문학자료집(I)

필자가 “유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주유배문학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다 들어가신 선친때문이다. 그러나 천성이 개운한 편에 그 관심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그것이 필자의 천성이 개운한 편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그것이 다른 때문이라고 번역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계면쩍음이 많다.

연전에 필자의 “그 성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유배열전-” (문화과학사, 1999)이 출간되면서 과연 빛이나 월등하기 우러렸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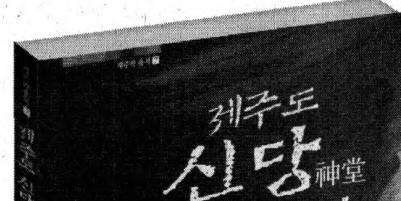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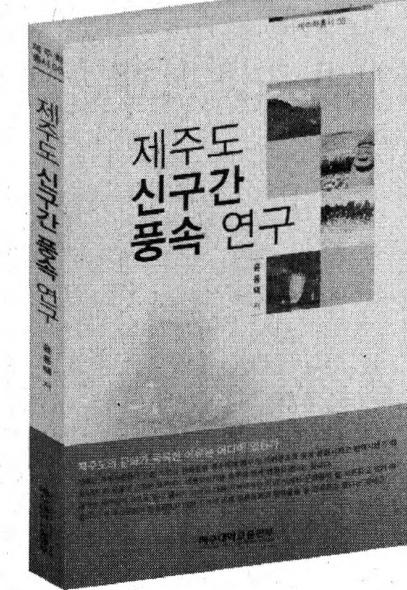
제주도의 문화가 독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제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게 분화시키고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즉, 문화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주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섬이 육지와 밀리 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문화의 집집쳐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와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제주도 신당 이야기

신당은 제주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래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로서 짙게 녹아있는 정소이다. 각 신당마다 그 역사가 다른데, 신당에는 시간이 아주 두껍게 내려앉아 있다.

신당에 끌인 시간의 두께를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신당에 쟁인 시간을 해설하고 다니기 혹은 시간을 말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 신당 이야기)라는 제목은 달라야 한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신당들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소재에 다름 아니다. 이책에 신당이 씨줄이라면 날줄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이다. 또 신당이 날줄이라면 씨줄은 사람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성찰이다.

■ 루앙대학 이사벨루루 교수 초청 강연

## 프랑스 문화 소개부터 한국 문화 발전까지

‘프랑스·한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 비전’ 특강



지난 2007년, 제주-루昂대학 교환프로그램으로 제주대를 방문한 루昂대 학생들이 다도를 배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프랑스 루昂대 이사벨루루 교수가 **‘프랑스·한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비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제주대와 루昂대의 자매결연에 따른 교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두 대학은 교수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2005년을 시작으로 매해 흘수 해는 루昂에서 제주로 학생을 보내고, 짹수 해는 제주에서 루昂으로 학생을 보내며 학생 간 교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흘수해인 올해 여름에는 루昂대 19명의 학생이 제주로 올 예정이다.

이사벨루루 교수는 교환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서로 많이 친해져 단순한 교환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간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져야 하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불어를 배워 내년에 루昂 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사벨루루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프랑스 문화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과거 ‘누벨바그’로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꿨고, 현재 세계 4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가 열리는 대표적 ‘영화 국가’의 학자답게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찬사를 강의 내내 쏟아냈다. 다음은 강의 요약.

### ▲ 프랑스의 문화, 대학에 대해

프랑스는 지역적으로 유럽의 관문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 유로화를 2002년 갑자기 쓰게 됐는데 변화가 쉽지 않았다. 적용 못한 사람들은 쇼크에 빠졌다. 마치 중국, 일본, 한국이 갑자기 같은 화폐를 쓰게 된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유럽은 60개가 넘는 모국어와 공식어 23개가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가 많아 불어와 계통이 다른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프랑스 각 지방에서는 각 지역 고유의 방언이 쓰이고 있는데 소수방언지역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무시당한다. 프랑스와 벨기에 퀘벡 등이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종교는 구교가 가장 많고 2위는 이슬람이다.

### ▲ 프랑스에서의 한국 영화

한국과 프랑스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예술, 음식을 좋아하는 것, 문화,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비슷한 점이 많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전역에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많아 이뤄졌다. 이때 전공을 불어로 한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불어를 사용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영화에 많

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프랑스와 달라 매력이 있다.

아시아 영화만 모아 상영하는 유럽 유일의 국제영화제인 도빌 아시아영화제는, 이처럼 한국영화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수일 감독은 〈검은 땅의 소녀와〉로 그랑프리, 비평가상을 받았고, 2002년 송해성 감독의 〈파이란〉, 2001년 박찬우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주요 상들을 수상했다.

브륄 국제 아시아영화제에서는 노영석 감독이 상을 받았다. 루昂대 내에는 ‘아고라’라는 한국영화제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2006년 아고라에서는 故 신상옥 감독 회고전을 했다. 아쉽게도 신 감독은 회고전 직전 돌아가셨다. 임상수 감독은 직접 찾아와서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감독들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자신의 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객들과 대화한다. 그런 모습이 꽤 인상적이고, 인강으로 보인다. 사고가 담혀있고 권위적이어서 대화가 힘든 프랑스 감독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임권택 감독이다. 임권택 감독은 한국 전통적인 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체한 후 영화적 언어로 재구성, 재해석한다.

세계적 거장이라 불릴만 하다. 임 감독은 〈취화선〉에서 조선시대 현재 화가인 장승업을 완벽주의자이며, 자부분방하고 과학적 캐릭터로 그렸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성을 적나라하지만 아름답고 노련하게 다뤄 매력적으로 보였다. 임권택 감독은 영화를 통해 사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김기덕 감독도 인기가 높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프랑스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다. 불교적 상징의 등장으로 프랑스인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철학적 부분을 제시하며 프랑스인들의 철학적 감수성을 자극했다. 또한 한국 영화는 수준 높은 영상미로 프랑스 관객들의 입맛에 맞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이다. 프랑스와 한국은 사고, 문화 특히 영화 등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루昂대와 제주대의 교환프로그램은 그려 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용희 수습기자

### 프랑스의 영광은 ‘문화적 다양성’

### 한국과 프랑스 공통점 많아

### 한국 영화예술 독창성 돋보여

회원 국가들 교류는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대학 교환 시스템으로, 학생 간 교환 시스템인 ‘에라스무스’와 교수 간 교환 시스템인 ‘소크라테스’가 있다.

1999년 6월에는 유럽연합간 교육체계를 통일하는 ‘볼로나 프로세스’가 있었다. 이는 2010년까지 유럽연합이 교육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즉, 졸업장, 학위가 연합국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중세부터 해오던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게 됐다. 교육 체계를 바꾸는 전담 부서가 설립될 정도로 큰 변화를 거쳤다.

또 양익준 감독의 〈뚱파리〉가 대상(Le Lotus du meilleur film)과 비평가상(Lotus Air France)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양익준 감독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었다. 한국영화는 특유의 감동

을 통해 11회째를 맞는 도빌 아시아영화제에서는 ‘이첨동 감독의 날’을 열었다.

이 감독의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등 그의 대표작들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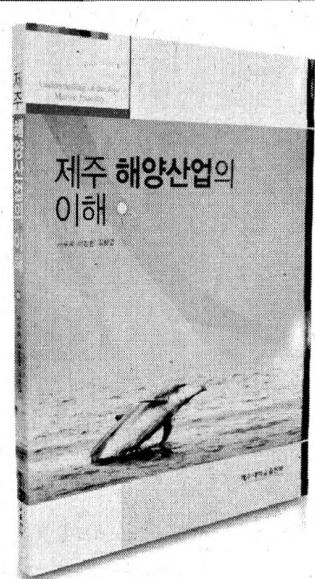
또 양익준 감독의 〈뚱파리〉가 대상(Le Lotus du meilleur film)과 비평가상(Lotus Air France)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양익준 감독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었다. 한국영화는 특유의 감동

##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오늘날 세계는 약 6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50년에는 약 92억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 생수부족, 에너지자원, 광물자원의 부족, 생활환경의 오염, 대기의 온난화, 해양 상승 등 인류의 생활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지금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원의 보고 특히 식량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서두록 / 이창현 / 김병현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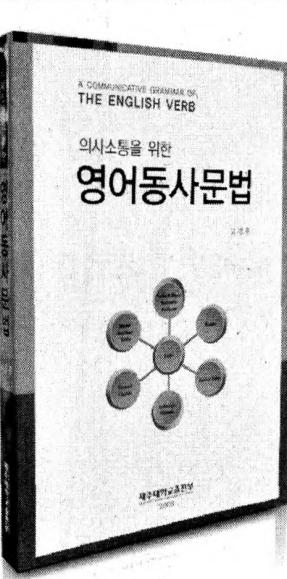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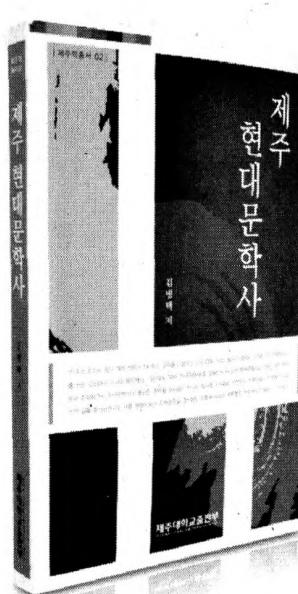


## 제주현대문학사

이미리 서적 서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적 전제가 없이 서술된 문학사는 제대로 서술된 문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주현대문학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 의해 써어지는, 완벽한 문학사는 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단연히 최소한 이직까지 그런 문학사는 써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의 단점을 변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병택 저 | 정가 15,000원



##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동사문법

동사는 문장의 ‘핵’(核: core)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 문장 구조·태·시간 관계·화자의 심적 태도 따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형태·기능·의미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상자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문법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의 『실용영문법해설』 1권(2006 증보판)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동사를, 그리고 2권(2001)에서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등 모두 여섯

제주대학교 출판부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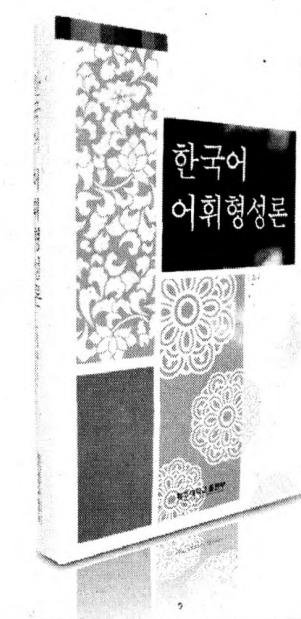
## 한국어 어휘형성론

사람은 말과 글로써 사상(思想), 감성(感性)의 세계를 펼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다. 또한 언어는 시대·변천과 사회·변화에 따라 생생소멸(생消滅)한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따라 말아휘를 일마든지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 대하는 말, 특히 어휘는 언어체계에 내재화된 한 수많은 언어재(語語材)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떤 일련의 원리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 말이 만들어 진다.

최규일 저 | 정가 30,000원



### 인터뷰 - 시인 도종환

## “시를 읽으면 삶의 질 달라져요”



시인 도종환

피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사위엘 울만의 ‘청춘’을 추천했다.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스물이라 해도 청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며, 가지고 있다면 예순이 넘었다 해도 아직 청춘을 간직한 자라는 내용을 가진, 사위엘 울만이 철순에 접어들어 적은 시였다.

“청춘을 간직하고, 늘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라는 것, 그는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의 본질적 차이점을 역설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것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웃을 것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웃을 것을 웃게, 그는 그를 그에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깨어 있는 감각으로 사는 일이야” 아름다운 것만을 느끼는 것은 외려 깨어있지 못한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며 “교정에 피어있는 꽃을 잡아이라도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하늘의 빛깔을 잡아이라도 웃어야 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제주도의 삼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고민도 적지 않다.

타인의 슬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알아서일까, 그의 시는 그림을 그리듯 섬세하다. 늘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는 본래 미술을 꿈꾸던 미술학도였다. 대학으로 진학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술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게 된 것이 그 문인의 길로 들어선 첫 번째 결이었다. 그는 글을 읽으며 외로움과 배고픔을 이겨냈다. 시를 읽다 보니 자연히 시를 쓰게 되었고, 시를 읽다 보니 자연히 시를 쓰게 되었고, 시를 읽다 보니 자연히 시를 쓰게 되었고, 시는 곧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

나침반이 그를 쉬운 길로만 인도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갔을 때, 그는 언제나 옳은 길에서 있었노라고 회상했다. 힘들고 지친 길이라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그것이 옳은 길이었노라고. 시는 그에게 있어 나침반이다. 등대였고, 인도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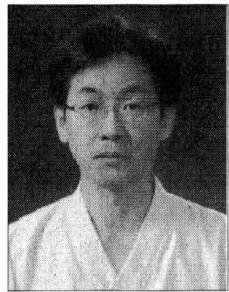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깊은 고뇌와 사유의 시간은 불가

김로마나 수습기자



무론유설

## 편견·배타성 넘어 성숙한 사회로 가자



김재원 통역대학원 교수

누군가가, '야구(野球)'라는 운동을 두고 '봉구(棒球)'라고 우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겠는가? 필자는 그 '봉구'라는 단어를 흥풍 스타TV 스포츠 뉴스의 자막을 통해 처음 대했다. 그리고는 "아, 중국에는 저런 구 기종목도 있는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봉구'라는 운동은 바로 '야구'였다. 중국에 야구가 들어온 지는 얼

마 안 되었지만 그 '야구'라는 운동이 들어 왔을 때, 중국인들에게는 '야구베트'가 가장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봉구'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그 '야구'를 '베이스볼(baseball)'이라 한다. 그들의 눈에는 '야구'라는 운동의 특색이 '베이스'에 가장 많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베이스볼'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 왔을 때 일본인들은 그걸 '야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일본을 통해 그 운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야구'라고 하기에 그자 따라서 '야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그 운동을 '야구'라고 명명하게 된 데에도 매우 흥미로운 사회문화적 심리가 담겨져 있다. 야구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전 그들이 하던 스모나 검도, 가라데와 같은 전통적인 운동들이 모두 작은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이었던 만큼, 일본인들이 '야구'라는 운동을 처음 대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야(野): 드넓은 운동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같이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들에게는 '넓은 운동장'이 전혀 인상적인 것이 될 수 없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 운동장이 야말로 심리적 해방의 상징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생기기만 하면 늘 자신들의 관점만이 정의인양 외치면서 결핏하면 야구파와 베이스볼파, 봉구파로 분파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각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서로 다른 점만을 들추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동을 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배타성이 있다

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 배타성 속에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상처를 입어왔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존본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견은 분명히 편견이다.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견으로 인한 배타성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상대방을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성숙된 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편견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을 더욱 더 배척하는 분열적 사회로만 가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멀리 보자, 말고 가까이 보자.

엊그제 조그만 다툼으로 멀어진 친구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의 편견보다 자신의 편견을 먼저 스스로 끌어내어 화해를 청해 보도록 하자. "사랑을 하면 알게 되리라, 알게 되면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리라."

사설

## 새 총장에게 바란다

사람은 장사를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병을 치료해주며 산다.

서로 사는 방식은 달라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무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문제이다.'라고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제도 탓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제도를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는 사람이 더 잘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자기의 사로운 욕심만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꼭 어떻게 해야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결정된 법은 없다. 무엇보다 나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헤아려고 한다면 언제나 옳을 것이다.

물론 빼난 분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새로 오신 분은 그와 생각을 달리 하여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오시는 분은 지난날 잘못 경영된 것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부정하며 고치려고 물고 말고, 서서히 고쳐나가되, 자신과 동류의 사람들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아리아인을 위해 일한다면 추앙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면, 떠나는 날 그동안 총장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가진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헛날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날의 온갖 암금을 내려놓고 오직 제주대학의 모든 이에게 추앙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경영해 주기를 빈다.

독자기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경험하고 싶어요"



김진형 국어국문 1

대학에 들어 온 지 며칠 안됐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3월에 오리엔테이션 받고 MT 다녀오면 금방 시험이 돌아오고, 리포트 몇 편을 제출하면, 체육대회, 그 다음 축제를 지나면 기말고사에, 곧 방학'이라고.

별 생각 없이 허리를 떨었던 말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마음깊이 와닿는다. 벌써 5월이다. 체육대회로 시작해서 축제로 장식하게 될, 정말이지 행사가 많은 달이다. 잠깐만 정신을 팔아도 쓰살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다보면 한 학기가 물거품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릴까 봐 걱정이 크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스스로를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는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대학생에게 있어 어쩌면 공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경험' 만큼 좋은 재산도 없다는 말을 한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적,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면, 내게 그 이상 큰 바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함으로써 자리를 받고,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무리 머리에 떠를 둘러가며 공부를 하고, 새로이 결심하고 다짐을 한 데도, 직접 맞부딪쳐가며 체득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대학 생활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어떤 일에서든 내가 우선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ejnu.ac.kr, 홈페이지 <http://www.cnupress.com>

독자기고

## '스승의 날'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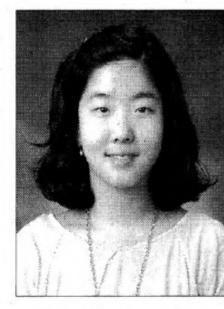
고유라 실과교육 1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온다.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는 모습, 선생님들을 향해 진심으로 쓴 편지로 가득한 칠판 등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오늘날의 스승의 날에는 촌지, 휴업 등의 단어가 뒤따리고 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제정된 이 날이 우리에겐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

스승의 날은 충남 경기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의 선생님들과 병종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해 오던 중 협의 아래 '은사의 날'을 정하기로 한 것이 그 유래다. 그러나 1973년 3월 모든 교육 관련 기념행사가 국민교육현장선포일(12월 5일)로 묶이면서 '스승의 날' 행사는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행사는 일시 폐지됐다. 이와 같

독자기고

## '세계치유의 섬' 어때요?



박해인 철학 1

온 상황에서도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은 계속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오던 중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을 다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촌지 문제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명목아래 '스승의 날' 행사가 소홀해지고 있다.

바람직한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으로 오고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풍토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스승의 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의 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근 '스승의 날'에 쉬는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스승의 날 교문을 열고 뜻밖하게 학생들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 비도덕적인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 건강한 '스승의 날'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스승의 날에 정상 수업하는 그 날이 곧 돌아오길 바란다.

국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현대의 학 시설 및 연구시스템이 돈으로 오고는 부자들은 그곳으로 치료하려 가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쪽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나 방법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술을 세계치유의 섬에 접목하는 방법이다. 전통의술은 한의학을 뛰어 넘은 또 하나의 의술로서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기한 의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의술을 가진 명의가 있다. 이런 분들과 연계하며 '세계치유의 섬'을 선포하고 홍보하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이러한 의료를 서양에서는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212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 '세계 보완 대체 의학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연구 보고서 발췌)

우리 제주대학은 제주도와 손잡고 대체의학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대체 의학에 관한 세계적 대학으로 만들면 대학 홍보는 물론이고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어 세계 학생들이 몰려 올 것이다. 제주도가 풍요로워진다. 의료분야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

